

먹고 즐기고 사랑한 필리핀 락(樂)아의 9월 이야기



CONTENTS

9월 활동정리

- ◎ 먹고
 - ◎ 즐기고
 - ◎ 사랑한
- 우리의 9월 정리

피드백

- ◎ 자유
- ◎ 식사
- ◎ 의사소통
- ◎ 유동적 일정
- ◎ 주변인으로 살기
- ◎ 성적농담
- ◎ 사람과의 관계

개인 에세이

- ◎ Jimmy
- ◎ Bono
- ◎ Sue
- ◎ Pepper
- ◎ Jun jun

← 253-270

탑승구 登机口 Gate

Gate 登机口 Gate

230-252 →

← 수하물검사실 B 양회정 (22) #BJUNJUN

#지도천재 #궁금소년 #1초김강우

수하물 검사실 A 김정현 (23) #PEPPER

#칭찬릴레이러버 #모닝빵데살

이주은 (24) # BONO

#집순이 #요리천재 #똥, 아찔한그느낌

박정현 (25) #JIMMY

#프로공정러 #필리핀오빠♥

문성아 (23) # SUE

#아이디어대장 #소비요정

Tax Refund 退税 付加価値税還付 부가세환급

식사, 음료 食料, 飲料 食事, 飲料 食品, beverages

KAL First

KAL Prestige

KAL Pro

락(樂)아: 필리핀 나가의 즐거운 아이들

NAGA Y 하우스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Kuya John

- # 백만 가지 매력의 소유자
- # "I am your big brother"
- # 나가 핵인싸



Chu chai

- # 우리 집 연예인

Kuya Vench

- # 근엄, 진지, 수다



Vhe Jhay

- # 장난 꾸러기
- # 우리 집의 비주얼 담당

Casi

- # 야채 싫어!
- # 스파이시 싫어!



Ate Mika

- # Tagalog Guro
- # 락(樂)아 6번째 멤버

1. 락(樂)아의 먹기

- ◎ 밥 해먹기
- ◎ 장보기 in P-market
- ◎ 필리핀 음식
- ◎ 나가의 한국 식당, 인연



① 밥 해먹기

그렇다. 우리는 열심히 먹는다.



음식은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 국내훈련 때 처럼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있다. 특별히 9월은 그 동안 음식 준비를 전담했던 BONO의 부담을 덜기 위해 팀원 모두 요리를 시작했다. 처음은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 있는 메뉴가 생겼다. 3일에 한 번씩 모두가 모여 어떤 음식을 먹을지 메뉴를 정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② 장보기 in People's Market

필리핀의 아침을 함께 깨우다.



필리핀의 아침은 굉장히 일찍 시작된다. 새벽 5시쯤이면 거리에 있는 상점이 하나 둘 씩 문을 열기 시작하고, 아침 7시가 되면 교통이 혼잡하다. 우리는 3일의 한번씩 CENTRO 에 있는 People' s Market 에서 장을 본다. 처음에는 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갔지만 이 제는 우리끼리만 장을 보러 가고, 어디에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지 몰라 헤매면서 2시 간씩 장을 보기도 했는데, 요즘엔 단골집도 생겨서 정겨운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조금씩 할인을 받고 있다.

③ 필리핀 음식

음식으로 소통하기.



마닐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나가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매 식사 때마다 필리핀 음식을 먹었다. 육식위주의 식단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계속 음식을 먹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음식과 비교하면서 필리핀 음식에 적응하고 있다. 생선을 못 먹는 BONO는 shark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Volunteer 친구들과 같이 필리핀 음식을 요리하기도 했다.

④ 나가의 한국식당, 한국관

한국음식 = healing time ,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



국내훈련 첫 날 나가의 아테네오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가 시내에서 우연히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아테네오 대학을 탐방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카이나 식당”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대화도 할 겸 함께 한국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관” 이었다. 나가에서 처음으로 김치를 먹는 순간이기도 했다. 필리핀에 적응을 하며 그리워진 한국 음식이 너무나 반가운 시간이었다.

2. 락(樂)아의 즐기기

◎ 마닐라

◎ Hot spring

◎ ATENEO 대학

◎ 따갈로그어 공부

◎ Hidden Naga

◎ 우리 회의, 나눔

① 마닐라 – Orientation

2018.09.09



필리핀에 도착해서 우리가 가진 첫 일정은 라온아띠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었다. Kuya Tax를 통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Kuya Pabs 를 통해 필리핀과 필리핀 YMCA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① 마닐라 – Tour

2018.09.10-11



4일 동안 마닐라에서의 일정 중 대부분은 마닐라 이곳 저곳을 투어 하는 시간이었다.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 싸운 Rizal 을 기념하는 박물관과 오랜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마닐라 성당,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까지 여러 곳들을 다니며 필리핀의 문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② Hot spring Resort

2018.09.17



우리가 나가에 도착했을 때부터 Kuya John은 종종 우리에게 Hot spring Resort 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우리는 드디어 그곳을 방문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Hot spring의 자연경관은 영화 아바타 처럼 좋았다. 또 차갑고 뜨거운 풀장이 함께 있는 그곳은 천국이였다. 필리핀에 와서 계속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른 문화,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③ Ateneo University 투어

2018.09.24



Ate Mica 와 함께 그녀가 졸업한 Ateneo University 를 방문해서 나가의 이곳 저곳을 투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가에 살면서 익숙하게 지나쳤던 곳이지만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바라보니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가에 와서 처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나가 시내의 전체적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었다. 참 예뻐다. 또 이날 카이나 식당을 방문해 한국인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⑤ Hidden NAGA

가까운 곳을 새롭게 보기.



9월 한달 동안 우리의 나가 탐방은 늘 일과가 끝나고 “There is wonderful place! Only 15–20 minutes!” 라는 Kuya John의 말과 함께 시작되었다. 옥수수 밭 근처에서 멋진 별뿔별을 보기도 하였고, Y 하우스 근처에 있는 Pasilika 성당에서 일몰을 봤다. Ate mica의 집 근처에 있는 박물관과 동산에 오르기도 했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다. Kuya John과 Ate mica 덕분에 우리는 나가의 보물들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⑥ Planning & Deciding

문제 → 고민 → 계획 → 수정 #무한반복



9월은 우리에게 “적응” 뿐만 아니라 “계획” 하는 시간이었다. 정기적으로 Kuya John, Ate Mica 와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Lupi 라는 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에서 출발해 라온아띠를 하는 이유까지 생각이 뻗어 나갔다. 이 시간들을 통해 다름을 조절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다.



3. 락(樂)아의 사랑하기

◎ 루피 방문

◎ 꾸야 존 가정 방문

◎ 생일파티

① Lupi

#Daycare center #회의 #Home stay #새로운 만남 #다양한 기대



우리는 9월 13일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9월 한달 동안 Lupi 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 계획을 세우며 Lupi를 자주 방문했는데, 방문하면 할 수록 우리의 초점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Lupi의 Daycare center가 중심이었다면, 회의를 거듭할수록 Lupi에 대한 우리 팀원들, Y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회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름을 확인하고 어떻게 맞추어나갈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발견하는 문제점으로 부터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② Kuya John's house 방문

#2018.09.22 #다정한 아버지 #새로운 만남 #이어질 인연



9월 22일은 Kuya's day 였다. 점심과 저녁 모두 Kuya가 요리해주신 음식을 먹은 날 이 었기 때문이다. 저녁은 특별히 Kuya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영화도 보고, 음식도 함께 먹 었다. Y 하우스에서 Kuya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다정한 아버지,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Kuya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Kuya의 가족들 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해본다.

③ 생일파티

#Casi #Pepper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가 나가에 도착한 당일인 9월 11일과 그 다음날인 12일은 Casi 와 Pepper 의 생일 이었다. Y 하우스 가족들 뿐만 아니라 Camsur YMCA 에서 함께 해주시는 코디네이터 분들도 오셔서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 조금 색다른 파티였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좀더 느낄 수 있었다.



4. 9월, 우리의 피드백

자유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안전에 대한 Y의 책임 그 사이.

01 우리의 안전을 위한 시간통제

국내훈련 당시에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Y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갈 때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혼자 나갈 수 없었다.

02 익숙하지 않은 '나' 보고하기

시간에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몇 시 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타협을 서로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익숙해지지 않았다.

03 언제나 함께 있는 동행자 혹은 감시자?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volunteer 친구들이 동행을 하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개념이 없었다. 항상 같이 있다 보니 영어를 사용해야 했고, 계속 해서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래서 우리는?

※ 나눔을 통해 서로의 답답함을 공유했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Y의 입장도 같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Y와 신뢰관계를 쌓았고 9월 후반쯤에는 1~3시간 정도 단원끼리 외출이 가능해졌다.

식사

라고 쓰고, 노동이라 읽는다.

01 시흥과는 차원이 다른 식구 수 & BONO의 요리 부담

시흥과 달리 필리핀에서 우리의 식사는 봉사단원들과 스태프, 그리고 손님들까지 10명이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그로 인해 요리하는 절대적인 양과 설거지가 많았다. 또한 국내훈련 때부터 상대적으로 BONO에게 식사준비가 집중되었던 것이 필리핀에서도 계속되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 식구들은 우리가 만드는 식사가 입맛에 잘 맞지 않았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다.

02 한국 마트를 이용할 때의 고민

종종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K-MART 에 방문해 요리 재료를 구매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현지 물가 대비 비싼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03 우리와는 다른 필리핀의 초대 문화

초기에 새로운 식구인 라온아띠 단원들을 보기 위해 예고 없이 많은 손님들이 Y 센터를 방문했고, 이는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과, 당황스러움으로 이어졌다. 특히 우리가 느낀 필리핀 초대문화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우리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때 예고 없이 방문한 손님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반기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컸다.

식사

라고 쓰고, 노동이라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BONO에게 집중된 요리 부담을 덜기 위해 팀원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비록 서툴지만 이제는 각자 식사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메뉴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했다. 또한 최대한 봉사단원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

※

그리고 현지 물가에 비해 비싼 한인 마트 보다는 현지 마트에서 필리핀 음식과 양념들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한식이 정말로 먹고 싶거나 예산이 많이 남았거나 필리핀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날에만 먹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초대문화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의사소통

#English #Tagalog #Bicol #Spanish

01

Kuya,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의사소통이 집중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결정을 하기 보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었다.

02

따갈로그어라는 더 큰 장벽

영어보다 따갈로그어가 익숙한 Lupi와 Dolo의 사람들과 미숙한 영어보다 따갈로그어가 더 미숙한 라온아띠 간의 회의는 따갈로그어-영어-한국어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가끔은 Tagalog에 대한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압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 배운 Tagalog를 일상에서 사용하려 노력하며, 하루 일정 중 개인 공부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익히고 있다.

유동적인 전체 / 하루 일정

길을 잃었다. 뚜루뚜루뚜...

01

12월? 10월 초? 10월 중순?

09월 초기에는 전체 일정을 알지 못했는데, 대략적인 일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Lupi 홈스테이 일정이 변동되었다.

02

예측불허 Y 하우스

하루에 대한 일정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Y 하우스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9월 초반에 있었다. 낯선 상황과 사람의 연속을 경험하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

시간이 갈 수록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적응해갔고, 특히 방문객이 오는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Y와 나누기도 했다.

주변인으로 살아가기

#오빠♥ #연예인병

01 우리에게 오는 시.선.집.중.

우리가 길을 다닐 때면, 손 하트를 하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현지인처럼 살고 싶었지만,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온실 속 화초’처럼 편안함을 제공 받고 있다.

02 우린 협력자 그리고 주변인이 될 수 없는가?

우리가 첫 활동을 시작할 ‘Lupi’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권력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개선될 부분에 대해 관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03 우리가 생각하는 ‘라온아띠’ 란?

우리는 ‘Lupi’를 방문하거나 계획 할 때, ‘라온아띠 다운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차도 존재하고, 이를 현재 조화롭게 활동에 녹여나가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

※ 그래서 우리는?

나눔을 통해 주변인이 되자는 마음가짐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을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선하게 될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될 지역에 직접 살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불편이 진정한 불편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지자고 합의를 하고, 하루 빨리 홈스테이 일정이 시작 될 수 있도록 Naga YMCA 관계자분과 합의 중에 있음.

성적 농담

다른 것과 불편함의 아슬아슬한 경계

‘Gender’ 에 대한 다른 생각

01 Y 하우스에서 식구 들과 함께 지내며, 젠더적 측면에서 필리핀과 우리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대화를 하며 아슬함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 단원들이 상처를 받은 일들도 있었다.

어떻게 대화 할 것인가.

02 시간이 지날 수록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Y 식구들과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 방법 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 이 주제를 놓고 한국 Y와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Y 가족들과의 관계

가족 인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우리?!

01

Volunteer,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3명의 Volunteer 친구들이 있다.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우리보다 어린 17, 18살 친구들이 우리를 돕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이 고민을 지속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 였다.

02

다른 모습?! 틀린 모습?!

특히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우리를 대할 때와 이들을 대할 때 다른 모습이라는 점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해 Kuya와 이야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

그래서 우리는?

현지 Y와 의사소통을 하기 전, 한국 Y와 연락을 하던 중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조언에 따라 조금 더 지켜보며 Volunteer 들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한글과 Tagalog를 서로 가르쳐 주면서 일과 이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5. 락(樂)아의 개인에세이



JIMMY 에세이

행복한 9월

9월의 첫 필리핀 생활은 스며드는 기간이었다. 비행기에서만 해도 도착하면 어떤 활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신나서 소리 지르던 우리는 우선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한국의 담백하고 매운 음식과는 달리 필리핀의 음식은 기름지고 달았고, 그래서 항상 김치가 생각났고,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은 당연히 없었으며, 손빨래를 하면 하늘에서 분무기로 옷들을 딱 입지 못할 만큼만 촉촉이 적셔주고, 화장실에는 휴지 대신 물통과 비누와 바가지가 있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소하던 문화들이 차츰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필리핀에서 우리의 활동은 자율성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루피’와 ‘들로’라는 마을이 우리의 활동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언제, 누구와, 얼마동안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등 모든 세부 일정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해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주어진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프

로젝트를 기획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뻐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 마을들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려 노력하고 그

속에서 수없이 고민하는 모든 일들은 낯설고 어려웠다. 또한 세부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족들과의 생활에도 적응해야 했고, 손님도 맞이해야 했으며 생활적

인 가사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일정들이 정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

던 것 같다.



JIMMY 에세이

행복한 9월

우리 팀은 현재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태다. 루피 마을에서의 세부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데이케어센터의 부역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변화하면 좋을지,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어떤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지 등)을 기획하다가 프로젝트에 대한 서로의 기대, 나아가 라온아띠에 대한 서로의 기대들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세부적인 가지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각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지,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는지,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훈련에서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말이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 보니 계획이 계속해서 꺾도는 듯 했다. 결국 우리는 10월에서의 마을 활동을 잠시 미루고 따갈로그어 공부와 함께 2주 간 서로의 기대와 목표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로 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실마리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우리의 기대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기대, 캄수르와 한국 YMCA의 기대, 국민은행의 기대까지 조화롭게 이를 실마리를 얻는다면 금상첨화겠다.

다들 별 탈 없이 잘 적응하고, 서로의 기대를 나누고 합의를 이루어보자라는 생각이 공유되었다는 점에서 9월은 정말 의미 있었다고,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나름의 의미부여를 해본다. 이미 정해진 일정들을 소화하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면 서로의 근본적인 생각과 기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느리겠지만 다함께 같은 방향을



JIMMY 에세이

행복한 9월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의미가 더 깊게 와 닿지 않을까. 물론 10월에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과 더불어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고민들을 할 수 있고, 다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들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즐거움은 함께 즐기고, 슬픔은 함께 위로하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나눔 때 항상 하는 말처럼 내일도 파이팅.



BONO 에세이

함께 하는 일상이 특별한 의미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은 익숙함과 잠시 헤어지고, 새로운 것과 만나는 시간인 것 같다.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라온아띠의 문을 두드리고,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지금 까지 3개월 동안 나는 라온아띠 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나는 라온아띠 라는 시간을 통해서 삶을 사는 다른 방식을 배우고 싶다. 9월 한 달 동안 나는 우리 팀 그리고 Y하우스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배워 나갔다. 처음 만나는 식구들과 얼른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도 하고, 아주 조금 만난 시간들을 가지고 내 느낌, 생각대로 판단 하다가,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9월 한달 동안 라온아띠로 산 '나'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지역 훈련 때는 내가 도맡아 했던 요리를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새로웠다. 팀원 모두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 덕분에 느낄 수 있는 새로움 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내'가 팀원들과 가지는 나눔 덕분에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마운 마음들을 내 마음 깊이 가득 담아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 사용하고 싶다.

문득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한국에서는 왜 다른 방식의 삶을 고민하지 못한 것일까? 오는 10월에는 Lupi 에서 살면서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겠다.



SUE 에세이

잘해야겠다는 마음 버리기. 쉽게 대한 불안함 버리기. 우리 팀 더 사랑하기.

인천공항에서 18기 단원들이 팀 별로 흩어지고 우리 5명만 남겨졌을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다섯 명이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과 설렘이 들었다. 나가에서의 한 달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특별한 국제 자원 활동이나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지만, 언제나 우리를 1순위로 두시는 Kuya John, 항상 성심 성의껏 옆에서 도와주는 Mika와 VJ, Chew 그리고 KASI. 이들의 존재와 그들이 주는 소소한 일상들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나가 Y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국제 자원 활동의 자율성이다.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과 예산을 활용해 우리가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프로젝트와 홈스테이 일정이 조금 미뤄져 아쉽지만, 미뤄진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여 재미있는 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

항상 일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했고, 더 빨리 성공하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한국에서의 내 모습과 조금은 안냉한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서사가 다르다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바퀴벌레도, 개미도, 손으로 똥을 닦는 것도, 복잡하고 질서 없는 도로도 있는 그대로의 필리핀으로, 또 나가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다. 10월은 이런 불편함이 더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팀원들에게 더 따뜻한 말, 응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1/5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화이팅!



PEPPER 에세이

그리움과 적응 그 사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나가에서의 첫 일주일 동안 마음이 시름시름 앓았다. 자만이 넘쳤던 내 영어 실력은 보란듯이 폭 가라앉았고, 필리핀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았다. 난 절대 피곤하지 않았는데 “알 유 타이얼드?” 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다. 나가 생활 이틀째에 맞이한 23번째 생일은 감당하기 벅찬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다. 생일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연락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서럽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곁에 있어준 우리 팀원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편안함, 그들의 섬세한 배려와 진심 어린 걱정들, 가끔씩 눈물을 썩 빼는 웃음까지. “난 우리 팀이 너무 좋아 우영” 하는 보노 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난 인복이 많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가만히 우리 팀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9월 한 달 동안의 필리핀 생활은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스마트폰 하나를 포기했을 뿐인데 여유, 취미가 되어버린 독서, 눈과 마음으로 사진 찍기, 주변을 향한 관심을 얻게 되었다. 늦은 밤 여자들끼리 방에 누워 나누는 암흑 속 깊은 대화, 식후 펄 추가 버블티, 엄마 미소 유발하는 봉사자 친구들의 순수함과 넘치는 끼, 심장이 가장 빨리 뛰는 순간은 설거지 당번을 정할 때이며, 몸을 기어 다니는 개미를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떼고 바퀴벌레를



PEPPER 에세이

그리움과 적응 그 사이.

실내화로 잡으려는 용기가 생겼다. 망고는 씨를 쪽쪽 빨아먹을 때 가장 맛있으며, 한국 노래보다 따갈로그어 동요를 더 많이 흥얼거리는 우리를 발견한다. 식후 트림 문화에도 점점 아무렇지 않아지고, 물과 손만으로 용변을 해결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져 온 화장품들은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선크림도 슬슬 귀찮아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일정과 날씨도 이제는 슬슬 재미를 느낀다. 아, 기능성 최고인 라온아띠 단복은 최소 3일은 입어줘야 한다. 땀냄새 제로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배운 것 많고 감사한 게 많은 데 남은 4개월의 감사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감사를 감사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필리핀은 강아지가 참 많은데, 거리의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집 버들이가 정말 보고 싶다. 동생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긴 하지만 늘 부족하다. 내 자양강장제 버들아 잘 지내고 있지 아가 손 얹아 코코코 엮드려 기다려 하나둘셋 하이파이브



JUNJUN 에세이

반드시 적응하기.

9월 달은 필리핀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라온아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 아직 이 답을 얻지 못 했다. 언젠가 이 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천천히 이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의 내 생활과는 달리 천천히 그리고 조금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나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9월 8일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하고 첫 순간부터 많은 일이 있었다. 일단,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나서 수화물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캐리어 손잡이가 부서지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이 불행의 징조였는지, 그 후에 우리는 국제 미아가 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공항 출국장에 필리핀 YMCA 관계자분이 바로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곳에 계시는 바람에 한 시간 동안 분주하게 Kuya Pabs와 연락을 하는 등 조금은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간 것 같다. 이후 우리는 숙소에 잘 도착했고, 필리핀 Y에서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과 마닐라 시내를 구경하면서 잘 지냈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게 될 'Naga'라는 지역으로 10시간 동안 덜컹덜컹 거리는 벤을 타고 도착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두렵기는 하지만 말이다. 첫 Naga에서의 생활은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아직도 일정의 불안정함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 불안정함을 안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 이 과정을 즐기려고 하지만 마냥 즐기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JUNJUN 에세이

반드시 적응하기.

그립기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조금 자유롭지 못했던 삶이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했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 산책을 나가려고 해도 누군가가 같이 가야하고, 그럼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또 다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도 서로가 신뢰를 쌓고 난 이후에는 혼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다만, 장소가 정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혼자서 한 번은 일탈을 꿈꾸며 1시간 동안 걸어서 시내로 나가기도 했었고, 필리핀의 교통수단인 Jeepney도 다른 이들 없이 도전해서 성공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일탈의 과정이 나에게 조금 더 필리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율활제 같은 요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언어의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이 나에게 조금 많이 버거웠다. 지금도 버겁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불편함과 다름에서 오는 고통들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의 국내 훈련이 많이 생각난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동과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나에게서는 힘든 과정이다.

그래도 마냥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힘들지만은 않다.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동네 꼬마 친구들, 그리고 나를 찾아서 이곳을 방문해주었던 친구 등 서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좋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JUNJUN 에세이

반드시 적응하기.

‘외국에서 머리 자르기’를 실행하기도 하고, 내가 선망했던 외국 문화를 직접 경험을 하는 때에는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내 마음 속을 꽉 채워주기도 한다. 또한, 아침마다 장을 보러갈 때 행복해진다. 아침 시장의 분주함과 항상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장 상인들 그리고 이 분들이 잘 계시고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오는 마음의 편안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Kuya John이 한번씩 Naga의 유명한 곳을 데려가 주시고, 드라이브를 같이 할 때에는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시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으시다. 또한,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의 취미를 찾게 되었다. 바로 ‘요리’를 하는 것이다. 요리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요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지침이 사라지고 행복해졌다. 이렇듯 나에게 대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좋은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과 이야기하고 싸우는 과정 또한 아주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는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은 아닌지, 내가 소비하는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내가 말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국내훈련 때 들었던 강의 내용인 ‘날라리 봉사’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심인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 많은 생각을 조급해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답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해주는 좋은 팀원들이 내 곁에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남은 기간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기대가 된다.



멋다한 우리 이야기

사진으로 말해요



못다한 우리 이야기

사진으로 말해요 2

